

#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 착했던 그녀가... 악독해졌다

“주아란은 굉장히 무서운 여자예요. 하지만 분명히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줄곧 청순하고 착한 역을 연기해온 배우 이소연(27)이 12일 시작하는 SBS TV ‘천사의 유혹’에서 복수의 화신 주아란으로 변신한다.  
 복수를 위해 원수의 아들과 결혼을 하고, 남편이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자 죽이려고 하는 악녀다.  
 이소연은 7일 오후 복동 SBS에서 열린 ‘천사의 유혹’의 제작발표회에서 “이번 역이 굉장히 센데, 내가 봐도 착한 역보다 악역 연기가 더 나은 것 같다”며 웃었다.  
 그는 “우리 드라마가 자극적이고 과격적인 내용이 많은데 그 중심에 주아란이 있다. 주아란은 내가 봐도 무서운 여자다. 하지만 이 여자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이유가 있다. 힘들고 아프게 자라왔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주아란은 남편이 예쁘게 꾸며놓은 신혼방에서 정부와 정사를 하고, 식물인간이 된 남편을 뜨거운 불로 지지는 등 심한 행동을 많이 해요. 촬영장에서 찍어놓은 영상을 보면서 모두 ‘어유 어쩔 지래?’라고 얘기하지만 전 앞에서 ‘인간적이지 않아?’라고 물어요. 주아란은 복수

## 이소연

‘천사의 유혹’서 복수의 화신으로

나 악행을 하면서도 괴로워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고요.”  
 복수를 위해 가면을 쓰면서 살기 때문에 극 중 이소연은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힘든 것을 안고 꼭꼭 참기만 하면 답답한데, 이번에는 막 터뜨리는 역이라 굉장히 재미있어요. 주아란은 청순한 모습, 유혹하는 모습, 악한 모습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줘요. 여배우로서는 여러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많은 재미를 느끼며 연기를 할 수 있어요. 술집에서는 섹시 댄스도 추는데, 제가 몸치라 연습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는 했어요.(웃음)”  
 ‘천사의 유혹’은 ‘아내의 유혹’의 김순옥 작가가 집필하는 또 다른 복수극이라 ‘아내의 유혹 2’라고도 불린다.  
 이에 대해 이소연은 “시청자들이 처음에는 ‘아내의 유혹’과 비교하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많이 다른 내용이다. 복수극이라는 점은 같지만 내용과 캐릭터가 ‘아내의 유혹’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예초 ‘천사의 유혹’은 시청률 40%를 넘나드는 MBC TV ‘선덕여왕’과 맞대결한다는 이유로 캐스팅에 고전했다. 그러자 SBS는 고민 끝에 ‘천사의 유혹’의 편성을 한 시간 앞당긴 월~화요일 오후 8시50분에 편성했다.  
 이소연은 “처음에 캐스팅됐을 때는 ‘선덕여왕’과 맞붙는 것이었지만 그래도 자신 있었다”며 “그런데 이제는 맞경쟁도 피하게 됐으니 우리로서는 너무 잘된 것 같다.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미녀의 변신 무죄

## 조용했던 그녀가... 화끈해졌다



“원래 저는 정적인 인물이라 카리스마와 파워가 넘치는 캐릭터에 부담이 가요. 하지만 반대되는 성격을 가진 역할도 도전해보아야 한다는 욕심이 들었어요.”  
 아름과 상체를 간직한 역할을 주로 맡았던 채정안(32)이 이번에는 카리스마와 파워가 넘치는 여성 자동차 세일즈맨으로 변신한다.  
 채정안은 10일부터 KBS 2TV에서 방송하는 ‘열혈장사꾼’에서 자동차 영업 시장에서 ‘4대 천왕’으로 불리는 김재희 역할을 맡았다.  
 그는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원작에는 없는 인물인 만큼, 인물 성격을 스스로 창조해서라도 열심히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번 드라마에서 ‘팔색조’의 모습을 보여줄 채정안은 첫 장면부터 ‘발 연기’를 선보인다.  
 “김재희라는 인물은 하루에도 몇 번씩 상대방에 맞추어 옷을 갈아입어요. 첫 장면부터 자동차 안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다리가 잡히는 ‘발 연기’가 나오는데요. 카메라 각도도 그렇고 갈아입는 빨간 원피스도 그렇고 부담스럽지만 강렬하고 열정적인 아름다움을 보

## 채정안

‘열혈장사꾼’서 팔색조 모습 보여줘

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역인 박해진에 대해서는 “제 건강보다 상대 배우 건강이 더 염려된 건 처음이었다”며 “다치고 코피를 쏟는 모습을 보며 무슨 약을 먹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박해진 씨가 그래도 남자다운 면이 있어서 (누나인) 내 앞에서 약한 모습을 안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고 뿌듯했다”며 웃었다.  
 자동차 세일즈맨 역할인데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나는 질문에 그는 “자동차 박물관에서 전시하는 엄청난 자동차들을 보며 남자들이 차에 빠지는 이유를 알았다”면서 “그보다는 ‘장사’라는 소재를 통해 수많은 사람의 삶에 대한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며 드라마의 관전 포인트를 제시했다.  
 하지만 사실 채정안은 지금 스포츠카를 몰며 즐거워하는 ‘드라이브 마니아’이기도 하다. “스포츠카는 처음 타봤는데, 처음에 좀 무서웠지만, 타다보니 할부로 다뤄주는 매력이 있더라”는 것이 그의 승차 소감이다.  
 한편, 30대 초반인데도 여전히 20대의 피부를 보이는 비결을 묻자 그는 이제는 쉽지 않다고 웃었다.  
 “예전에는 전날 무리해도 메이크업으로 커버가 됐는데, 이제는 힘드네요. 요즘은 스킨 케어에 많은 시간과 돈을 쓰고 있어요. (웃음)” /연합뉴스

유이·가인·승연·현아

‘걸 그룹’ 동서 싱글앨범

에프터스쿨의 유이, 브라운아이즈걸스의 가인, 카라의 승연, 포미닛의 현아는 ‘포 투모로우(4Tomorrow)’라는 그룹으로 유명 작곡가 용감한형제가 만든 디지털 싱글 ‘두근두근 투모로우(Tomorrow)’를 7일 온라인에서 발표했다.

12일부터는 순차적으로 뮤직비디오를 비롯한 각 멤버의 이야기를 담은 뮤직드라마를 웹캐인 사이트(www.4tomorrow.co.kr)와 네이버뮤직, 다음뮤직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

‘두근두근 투모로우’는 레계라들을 바탕으로 한 힙합 댄스곡으로 내일을 향해 도전하는 젊음과 열정을 담은 가사가 특징이다.

**인디안 아울렛**  
**새단장 OPEN**

**광주주월점**

**70~50%**

**정상·상실복합 매장**  
**주월동 빅마트 옆**

구매고객께 사은품 증정!

0621654-7205

**연기/남새로 민원고충 YHB가 해결**

민원사무실

**YHB**

www.yhb.co.kr